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2월 17일 (제99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진실과 지혜

타교단의 어느 목사가 내게 상담을 왔다.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숨김없이 대했는데 성도들이 자꾸 떠난다며, 목회 노하우에 대해 내게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다. “목사님, 진실은 진실된 자에게만 통하는 법입니다. 진실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나를 다 드러내고, 있는 대로 다 말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잠언에 말씀하신 것이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권면에 그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작 목사님을 만났어야 했다’며 탄식했다. 대문 밖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대문 안까지 들어오게 할 사람이 있고, 집 안까지 들어오게 할 사람이 있다. 내 속을 다 보여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 구분해야 할 사람도 분명 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은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지혜다.

목회 초기에 나도 진실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중요한 일을 다 공개한 적이 있다. 그래서 많이 낭패를 당했고, 때론 진실이 왜곡되어 나를 찌른 적도 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또 하나 진실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만, 굳이 진실이라고 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꼭 들을 자가 있는 반면 들어서는 안 되는 자가 있어서다. 주님도 사람을 구분하신 것이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낭패 보지 않기를 기도한다.

지난 2012년 9월, 젊은 세대를 위한 JC 아카데미가 창설되고 첫 강의에서 목사님은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고 독려했다.

“실패자들은 매사 핑계를 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미리 한계를 그어버린다. 시작부터 그 모양이니 무슨 일이 될까?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어찌 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공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다. 방법을 찾는다. 고뇌와 번민을 거듭한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는가?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길은, 방법은 바로 부단히, 부지런히 찾고 궁구(窮究)하는 자에게 섬광처럼 나타나는 법이다. 하나님

의 정의는 무책임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결국 핑계는 게으름의 산물 아니겠는가. 물론 핑계 대는 사람이 시도조차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리 저리 젓가락으로 찔러보듯 시늉이야 안 했겠는가. 아니 나를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해보겠다는 책임감으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노력한 사람은 핑계를 찾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한탄하며 용서를 구한다. 핑계를 댈다는 것은 질책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자기합리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목사님 말씀이다. “핑계와 변명은 살아남기 위한 조잡한 술수다.”

것이 복중의 복이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은 말씀하신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답이 정확히 나와 있다. ‘부지런 하라’는 것이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잠27:23).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부지런히 잃어버린 이스



JC아카데미에서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고 독려하시는 목사님

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분이기 때문이다. 제발 부탁하는데 핑계를 찾는 시간에 부단히 노력하여 방법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란다. 늘 말하지만 한계는 스스로 긋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호랑이에게 교육 받은 호랑이 새끼가 밤눈 어둔 고양이처럼 살아서야 되겠는가?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만 찾아내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법이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안 된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며 방법을 찾아라. 반드시 길은 있다.”

핑계를 대는 것은 참 무책임한 태도다. 일을 맡긴 사람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게으

름의 정의를 무책임이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결국 핑계는 게으름의 산물 아니겠는가. 물론 핑계 대는 사람이 시도조차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리 저리 젓가락으로 찔러보듯 시늉이야 안 했겠는가. 아니 나를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해보겠다는 책임감으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노력한 사람은 핑계를 찾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한탄하며 용서를 구한다. 핑계를 댈다는 것은 질책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자기합리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목사님 말씀이다. “핑계와 변명은 살아남기 위한 조잡한 술수다.”

성경 잠언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6:10~11)는 말씀이 있다. 이 ‘좀더’가 문제다. 매사 나쁜 원칙과 목표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에 충실하다. 인간인 이상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동일하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얼마나 스스로를 절제하며 원칙을 지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술, 도박, 쾌락에 빠져 인생 종치는 것이다.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면 당해낼 재간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라엘의 양을 되찾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까지 애쓰고 또 애쓰셨다. 그의 제자 베드로가, 바울이 그러했다. 또한 목사님은 살아있는 모델로 부지런을 넘어 바지런의 정수를 보여주고 계신다.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핑계란 자라날 틈이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다.

새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살자’ 했다. 핑계나 변명은 아예 생각조차 말자. 길은 있다. 방법을 찾자. 실패자는 핑계를 구하고, 성공자는 방법을 찾는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눅21:14).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필리핀 집회

2월 18주간, 세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사해로 흘러보냅니다. 반면에 사해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유입된 물을 밖으로 전혀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물을 나누어주는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가 풍성한 생명의 바다이지만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사해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누면 없어지고 적어질 것 같지만, 나누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홀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11:24).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울러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15:11).

‘명하여 이르노니’, 즉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군의 명령을 어기면 마땅한 형벌을 받는 법,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합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믿는 자 중에서 옳은 자와 그른 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양은 주님의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의 오른쪽에 설 양이냐? 주린 자에게 먹이고, 벗은 자에게 입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에 설 염소는 주린 자를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벗은 자를 두고 자기만 잘 입은 자이며, 목마른 자들을 나 몰라라 하고 저만 목을 축인 자입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힐벗고 주리셨습니까? 언제 옥에 들어가셨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25:45).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죽을 것인가

영생에 들어가는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구제는 축복의 씨앗이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로 그의 집에 찾아가 성령을 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짚어줍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행10:4).

사도행전 9장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그 역시 고넬료처럼 노인과 과부에게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겹옷과 속옷을 많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죽자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의 도움을 받

은 자들이 다 슬퍼 통곡했고, 몇몇 제자들은 급히 베드로를 청하여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가 지어준 속옷과 겹옷을 보이며 ‘선생님, 우린 이제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에게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고,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제한 것을 기억하사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와 이웃이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까요? 혹시 “그 사람 잘 죽었어! 인색한 사람이었어.”라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구제(救濟)는 건질 구(救), 건널 제(濟)로 어려운 형편에서 구해줘서 그 어려움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줘 봐야 이상하게 얹혀서 손해 본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을 구해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대박이 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28:27). 그들에게 기업자금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빚내서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끼니가 없는 자에게 쌀 한 되라도 주라는 겁니다. 연탄 몇 장 사줘도 됩니다. 없어서 못 배우는 자들에게 재능을 기부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파라과이에 수십만 벌의 옷을 보냈습니다. 한 옷을 잘 빨고 수선

하여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감동한 파라과이 대통령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파라과이 예

중 심 교 회에 어 마 어 마 한 땅을 제공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11:25),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5:10).

구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7-18).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볼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는 사랑을 가

르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당연히 사랑을 실천해야 할 레위인도 피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주막으로 옮기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여 보살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7)고 말씀하십니다.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한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없는 구제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3). 혹자는 구제하는데 설마 사랑이 없겠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있다마다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구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2-4)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심어야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일할 때 연장을 주지 않는 주인이 없듯 구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서 더욱 일하게 하십니다. 자선사업과 기부를 기업의 목표로 정한 세계 제일의 부호인 록펠러와 빌 게이츠의 삶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12:33).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인으로부터 평소 읽고 싶었던 시집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할머니 시인 ‘시바타 토요’의 ‘약해지지 마’라는 책이었습니다. 81세에 남편과 사별하고 취미로 일본무용을 하며 무료함을 달래며 지내다가 몸을 다쳐서 더이상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낙심하게 되었을 때 주변의 권유로 취미를 시쓰기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92세의 나이에 처음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는 시를 쓰면서 노령에도 한 가지 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집이 출간되어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읽히길 원했다고 합니다. 고이 간직해두었던 자신의 장례비용으로 99세의 나이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출간하였는데, 일본에서만 158만부가 팔리는 초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두 번째 시집 ‘100세’를 출간하고 10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독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큰 위로와 도전정신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꿈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데 우리가 현실의 환경을 보고 꿈을 버렸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시37:4). 우리가 꿈을 꾸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며,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너는 안 된다.”고 속삭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9:23)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사잡이라고 불렸던 유명한 화가 ‘해리 리버만’은 정년퇴직을 하고 미술회관에서 체스게임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77세가 된 어느 날, 함께 게임을 하기로 한 친구가 오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젊은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평생에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그냥 따라서 해보라는 말에 난생처음 붓을 잡았다고 합니다. 조금씩 배우다보니 흥미가 생겨서 81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101세까지 살면서 22번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자손이 있고, 난공불락의 성곽에 철병거를 가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지금 칠순의 연세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십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며 힘차게 달려가 승리의 귀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월인천강(月印千江)

월인천강(月印千江), 이는 중천에 둥근 달이 뜨니 천 개의 강이 달을 품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데 이 같이 적절한 비유를 찾기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태어났다. 각기 성품에 따라 개울도 되고, 호수도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니 둥그렇게 달이 뜨면 그 달이 만물에 드러남이니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롬 1:20).

우리 마음의 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찻잔에도, 우물물에도 달이 뜬다. 그릇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온전하게 달이 뜬다. 크게도, 작게도 맞춰 달이 뜬다. 온 천지에 달이 뜬다. 나는 강일까, 호수일까, 개울일까. 생긴 대로 하나님을 품자. 다만 내 마음에 풍량이 인다면 물결에 달이 산산이 부서지고 흙탕물이

나 오염된 물이라면 달이 드러나기 어려운 법. 내 마음의 풍량과 오염을 재우고 깨끗이 하여야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가 드러난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다. 날뛰는 이 마음을 비끄러매야 한다. 마음은 갓 잡아 올린 생선과 같다고 했으니 이 마음을 어찌 잡재울꼬.

내 마음을 보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관찰하라. 깨어서 관찰하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춤추게 두지 말고 ‘주여!’ 외치며 마음의 요동을 그치게 해보라. ‘주여!’ 외치며 내 마음을 보라. 감정이 폭풍우같이 소용돌이칠 때 그 바람을 잡재울 수 있다.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 앞에서 ‘주여!’를 주문처럼 읊어보라. 그욕이 내 마음 평강 속에서 주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날 것 아닌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이광주 전도사
leekjlkj@naver.com



:: 진리의 학당 ::

빛을 창조하심 (창세기 1:3~5)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니 영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빛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두시고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취셨다(고후4:6).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고(히1:2~3),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신 그것을 두고 우편보좌라 일컫는다(마26:64, 행7:55~56). 성경은 그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였다(요1:14). 하나님은 하늘에 영광의 천사들을 충만하게 두셨다.

영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만 물질계인 흑암에는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으니 어두움만 있고 진리가 없으니 거짓만 있고 생명이 없으니 사망만 있다. 그 안에 가둔 마귀를 어둠의 주관자(골1:13), 거짓의 아비(요8:44),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히2:14)라 했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보좌의 영광을 마련하셨으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빌2:6~8)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인자로서 보좌에 오르려 하셨으니(눅9:22), 인자의 출생을 맡을 산모와 또 산실이 필요했다(사40:3~11). 그리하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처소인 물질계를 흑암 속에 6일의 창조사역으로 조성하셨다.

흑암을 세상에서는 우주라 하고 성경은 음부라 한다. 그러므로 흑암을 알고 영광을 아는 자는 영이 산 자요, 우주로만 알고 있는 자는 영광을 알지 못하니 죽은 자다(요1:5). 물질계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하면 모두 사라질 것이다(벧후3:10, 계20:14).

하나님이 창조 첫째 날 흑암에 빛을 추가하셨다. 추가라고 함은 그곳에는 이미 물과 흙과 흑암이 있었기에 그렇다(창1:1~5). 그러나 빛이 없었기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에는 태양을 만들어 그 빛을 주관하게 하셨다. 첫째 날 만들어진 빛에는 속도가 있어 일초에 30만km를 간다. 창조된 빛으로 우주를 통과하는데 100억 년 이상이 걸린다. 그런데 영광

은 속도가 없고 어디에나 충만하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는 영광으로 받으신다(요14:13).

생명의 빛 예수, 그 빛의 출처가 어디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빛이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히1:3, 요1:1~5, 14). 첫째 날 지으신 빛이 넷째 날 창조된 태양을 통해 사람에게 비친 것같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빛이 인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비취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정오의 태양 아래 있는 것처럼 영광 아래 있는 것이다. 순간에 하늘을 통과할 수 있는 영원한 빛 아래 있는 것이다.

주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하신 후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다(요11:40). 예수 이름을 경외하면 인자에게서 영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것이다(말4:2). 나사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나왔고, 소경은 눈을 뜨고, 중풍병자는 자리를 들고 뛰며 기뻐

하였다.

당신의 영혼이 영광의 빛에 거하려거든 인자 앞에 나오라. 당신의 육신이 낮 열두시에 나와 있으면 수고를 쉬지 못할 것이요, 영혼이 인자 앞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이 땅에서 고생해야할 육체를 위해 만든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태양 아래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셨으니(히5:7)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히12:2).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취는 빛이요(요8:12) 그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심판하고(마16:18) 그의 제자는 음부의 영, 귀신들을 쫓아낸다(마10:8).

태양은 인자를 모시려고 잠시 동안만 존재할 빛이요,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태양 아래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말고 영생의 빛 가운데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자. 주 예수는 영혼을 비취는 빛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이 빛에 자기 영혼이 거하자.

박덕규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한 번의 예배

10여 년 전, 필자가 중국에 머무를 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외국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교회에 충을 든 공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혹여 중국인들이 들어갈까 예배당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했고, 그나마 그렇게 드리던 예배조차 나중에는 공인들이 들이닥쳐 문을 폐쇄해버리는 바람에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장막을 치고 서서 임시로 예배를 드렸지요. 물론 그마저도 나중에는 드리지 못해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내가 마음 놓고 갈 예배당, 큰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자니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혹은 억지로 끌려오듯 드린 예배가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평생 한번 제대

:: From Internet ::

덮어주기

어느 가을날, 한 젊은이가 묵상하며 산에 올라가던 중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니, 이런 돌덩이가 왜 사람 다니는 길에 있는 거야?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하며 젊은이는 삽으로 돌부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부리를 파헤치자 점점 돌의 크기가 드러

로 드러나고 싶은 예배이며,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거나 여러 사연으로 직접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라는 것을요. 성경에는 한 번의 예배로 축복과 저주가 명확히 갈라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창4:3~12).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한 죄가 매우 컸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종말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삼상2:12~17).

히스기야는 한 번의 예배를 정성을 다해 준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인 부흥을 맛보게 했습니다. 7일에 걸쳐 성전을 청소하고 정성껏 번제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하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번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하는데, 땅 위에 보이는 돌은 사실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놀랐지만 결심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파내야겠어!’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젊은이는 삽을 놓고 말았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젊은이는 파놓았던 흙으로 돌 자리를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위로 올라와 있던 돌부리가 흙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를 드렸고, 덕분에 자신들의 몸과 마음이 소생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수많은 감사예물을 성전에 가져오는 진풍경이 벌어졌지요.

오늘 당신의 예배는 어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늦거나, 졸림, 편생각에 사로잡혀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올 한해 결단해보십시오. 올해 참석하는 예배는 한번,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기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예배를 분명 기뻐 흠양하시고, 내 영혼, 내 가정에 변화와 축복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3~24).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아, 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생각 못했지?’ 그렇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모난 돌부리 같은 것들, 그것들을 파헤치면 더 큰 돌덩이를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을 파헤치지 말고 덮어주세요. 그러면 돌부리가 덮여 넘어지지 않고 부딪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덮어주신 것처럼!

:: 성도편지 ::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목사님. 어느덧 세월이 중턱을 넘어가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건

만 늘 부족함만 탓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중심에 처음 왔을 때 땅속에서 밀이 싹 올라오는 꿈을 꿔했습니다. 좋은 꿈이려니 생각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임을 이제야 실감하고 실감합니다. 물아치는 폭풍우 같은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염없이 울면서 온 세월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지만, 의무를 하지 않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모진 시집살이와 3남매와의 영적 싸움은 끝이 없었고, 어린 자녀를 두고 신학을 했지만 엄마라는 자리가 쉽지 않았습니 다. 이제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어느덧 남편도 70을 바라보고, 아이들

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이제야 삶의 뒀안길을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단에서 울려 퍼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고, 광야에 홀로 서서 하늘만 바라보는 외로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을 부어잡고 때론 목사님의 무릎에 기대어 통곡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학생체육관 집회에서 체육관 뚜껑이 열리면서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님, ‘내 손을 잡으라’는 주님의 환상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지금까지 왔습니 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이 꿈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환갑의 나이가 되었네요. 큰딸은 교육공무원이 되었고, 둘째 딸은 좋은 신랑을 만나 싱가포르로 오늘 시집을 가네요. 목사님,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든다’고,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고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

는데, 이제야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밖에 드릴 게 없네요.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남은 인생, 목사님과 함께 큰 예수중심의 배가 잘 가도록 작은 밀알이 되어 기도하면서 예수중심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지난 세월을 어찌 다 간증할 수 있을까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하늘을 보고 활짝 팔을 벌리고 웃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받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거대한 엔진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예수중심호’를 이끄시는 선장님, 예수중심의 거대한 배가 침몰할까봐 기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목사님, 작은 실 줄기로라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목사님의 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철이 조금 드네요. 목사님이 얼마나 큰 보물이신 것 을요. 사랑합니다.

박수희 전도사 올림

What Would Jesus Do!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지체들과 함께 각자 새해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계획에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많은 포부가 담겨있었다. 어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어떤 이는 승진을 위해 어학 공부를 하고, 어떤 이는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등,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다.

이런 모두의 계획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나를 포함한 모두가 ‘나를 위한 계획’만 잔뜩 세워놓았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2019년’이 아닌 ‘나 중심의 2019년의 계획’으로만 가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내 입맛에 맞는 자기중심적인 말씀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부끄러웠다.

이런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저의 2019년,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 삶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나에게 친절한 음성으로 말씀해주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봉사’는 내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해야 한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하는 예수중심교단 성도여러분, 우리 삶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Jesus(예수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기로 한 2019년. ‘나 중심’이 아닌 ‘예수중심’으로, ‘나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는 멋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What would Jesus Do!

송현혜 성도
charisma0691@hanmail.net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도 무지 믿지 아니하라 (요한복음 4장 48절)

청각적인 감동보다 시각적인 감동이 크다 보여주는 목회를 하라!